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성 반정모, 장흥 김흥필,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순천시, '2018 농정시책' 설명회 개최

순천시는 25일 덕림동 소재 농업교육관에서 올 한해의 순천시 농업정책방향과 주요사업을 소개하는 '2018 농정시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순천시는 올해 농정 전략 목표를 '비전과 꿈이 있는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으로 설정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순천형 스마트농업 확대와 7대 전략 품목을 고품질 브랜드로 집중 육성하고, 미래농업을 대비한 순천형 푸드플랜 수립과 로컬 푸드의 탄탄한 성장기반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 순천형 스마트 농장확대

순천형 스마트 농장을 136개소로 확대한다. 낙안 오이, 외서 딸기, 고사 미니리 등 지역별 고소득 7대 전략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친환경 유기인증 면적 500ha까지 확대하는 등 농축산물 안정 생산 기반을 다져 연간 소득 1억원의 부농을 140농가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비전과 꿈이 있는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을 향해 농업 정책방향·주요사업 소개해

◇ 학교 급식에는 무조건 Non-GMO 안전농산물 공급

순천시는 2018년을 시작으로 전남도 최초로 관내 초·중·고 79개교의 급식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관내 고등학교의 급식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예산 5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Non-GMO 우수농산물을 공급한다. 올해부터 관내 고교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됨에 따라 3월부터 관내 모든 고등학교 급식 전담인력 1천 건비 및 운영비 36억원과 식품비 38억원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안전한 학교급식 체계를 강화하고 무상급식과 친환경식재료 사업 일원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학교급식팀을 신설하고 GMO 농산물을

노출된 가공품인 식용유, 된장, 국간장, 양조간장, 옥수수콘 등을 우선 품목으로 선정하여 검증된 안전식품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 농산물 수출 100억 달성

순천시는 순천 우수농산물 100억 수출달성을 위하여 기후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유망과수 플럼코트 생산단지 50ha 확대, 순천매실의 전략 식품산업으로 육성 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산물 가공센터와 농산물 도매시장을 남동권 거점 물류기지로 육성하고, 우수 농특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 중국, 동남아 등 해외 시장 개척하기 위하여 지역 내 유망 수출업체와 농가를 선정, 수출 촉진 물류비를 지원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역내 농가·업체·기관이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우수 산림자원의 관광자원화

산림자원이 우수한 용계산을 기반으로 기적의 숲과 산림복지 레포츠 단지 등 신에서 뚝을 버는 산림소득사업과 시민들의 힐링을 위한 체류형 산림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순천도심과 순천만 국가정원, 용계산 프로젝트를 3각축으로 연결하는 순천의 랜드마크로 가꾸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순천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달라진 주요시책으로 육묘업 등록제도 신설, 농작물재해보험료 상향지원(80%→88%),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지원 단가 작목별 차등지원(조사료 400만원, 일반·쫄면작물 340만원, 무류 280만원), 밭농업·조건불리작물 등의 인산지급 등 농가에 필요한 정책들을 안내하였다.

순천=김승호 기자



화순군, 버스승강장에 바람막이 설치

부영1차·화순우체국 등 유동인구 많은 읍내 5곳 설치

화순군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찬바람을 피하도록 버스승강장 5곳에 바람막이를 설치했다.

25일 화순군에 따르면 바람막이는 부영1차, 청전아파트, 화순우체국, 제일중학교, 대리고차로 승강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화순읍내 5곳에 설치됐다.

바람막이는 추위를 차단하고 버스를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한 비닐커튼으로 디자인했다.

군은 당초 버스승강장 옆에 별도의 비닐텐트 설치를 검토했으나, 통

행로 확보를 위해 기 설치된 버스승강장에 열고 닫을 수 있는 커튼형식의 바람막이를 설치하면서 내부 온도가 2~4도 높은 훈훈한 효과를 내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찬바람을 피하고, 몸도 마음도 따뜻해질 바라는 마음으로 바람막이를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배려행정과 공감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생물자원보전시설' 등록

생태환경 전문 연구기관으로 위상 강화 토대 마련

순천시는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생물자원보전시설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는 2017년 2월 순천만 자연생태 연구를 목적으로 순천시가 환경부로부터 국비

를 지원받아 설립한 전문 연구기관이다. 이번에 생물자원보전시설 지정으로 공인받은 생물자원은 78종 1,294마리에 달한다. 특히,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볼 수 있는 홍화, 사마어유, 알다브러육지

거북 등 6종 50마리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며, 큰고니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으로 그 가치가 더욱 크다.

순천시 관계자는 "생물자원보전 시설로 등록된 것을 계기로 순천만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생물종에 대

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생태환경 전문 연구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생물자원보전시설 등록제도는 2004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써, 전국에 17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추진

6억4천3백만 원 투자 400여 대 지원...내달부터 시행

광양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6억4천3백만 원을 투자해 노후 경유자동차 400여 대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번 사업은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으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총중량 2톤 이상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트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이다.

신청 자격은 차량 최종 소유자가 광양시에 연속해 등록돼 있으며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또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양=김충권 기자

광양시,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 안착에 행정력 집중

지원사업 안내와 영세사업장 1:1 맞춤형 홍보 추진



가운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조기 안착을 위해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현복 시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며, "우리시도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이 현장 방문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정 시장은 "소상공인 사업장과 영세중소기업, 전통시장 등 방문

시 1:1 맞춤형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라"고 강조했다.

시는 그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알리기 위해 12개 읍면동에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지정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또 시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광판, 포스터, 플래카드, 리플릿 등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신현숙 부시장이 직접 12개 읍·면·동을 방문해 이·통장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 안내와 함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정희 투자일자리담당관은 "일자

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사업주가 제도를 몰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30인 미만 근로자(단, 공동주택의경비나 청소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가능)를 고용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매월 1인당 13만 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 가까운 읍면사무소, 등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광양=김충권 기자